

# 지구를 위한 30개 생활수칙

「지구의 날」을 맞아 미국에서는 「50 Simple Things You Can Do To Save The Earth」라는 책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어로는 「지구를 위한 50개 생활수칙」으로 번역될수 있는데, 50가지 내용중 우리실정에 맞고 우리도 쉽게 할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30개 수칙을 발췌. 요약한다.

- <1> 우편물의 지나친 발송을 중지하자.
- <2> 강을 오염시키지 않는 합성세제를 사용하자. 강의 수초를 죽이는 인산염이 바로 합성세제 과다사용으로 인한것이다.
- <3> 부엌에서 알루미늄 호일과 플라스틱랩을 추방하자. 또 종이타월도 없앨수 있는 대상이다. 호일과 랩 대신 작은병이나 다른 용기를 종이타월보다는 행주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 <4> 페인트의 사용을 줄이자. 페인트와 시너, 솔벤트, 물감마감제등은 모두 환경오염의 원인이며 색소를 만드는데 카드뮴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 <5> 운전시에도 타이어의 수명을 늘리는데 관심을 갖자.
- <6> 냉장고 가스레인지와 오븐, 에어컨, 세탁기의 적절한 사용이 환경보호와 직결돼 있다.
- <7> 수도물의 낭비를 막자.
- <8> 무연 휘발유의 사용이 대기오염을 줄인다.
- <9> CFC(염화불화탄소)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할

론가스를 사용하는 소화기, 에어로졸, 차량에어컨등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CFC를 대기에 방출하는 주범이다.

- <10> 자동차의 사용을 가능한 절제하자. 자동차는 이산화탄소를 대량 발생시켜 지구온실화의 주원인이며 질소산화물로 산성비를 만들어 내고있다.
- <11> 재충전을 할수있는 건전지의 사용을 늘린다. 건전지는 독성이 엄청난 수은외에 카드뮴을 함유하고 있어 유독성폐기물중 가장 위험한 존재다.
- <12> 집안에 감추어져 있는 독성물질을 찾아라. 영구적으로 줄을 세운 바지나 침대의 리넨천, 오븐클리너, 공기청정제, 줍약등이 문제다.
- <13> 보기에 좋은 파란잔디도 오염의 원인이다. 잔디를 키우기위해 들어가는 비료와 농약, 물이 결국 인근의 강과 저수지를 오염시킨다.
- <14> 바다오염을 막기위해 수시로 해변청소를 벌여야 한다. 바다오염의 가장 큰 문제는 썩지않는 플라스틱과 비닐제품이다.
- <15> 상아제품등 야생동물로 만든 상품을 구입하지 말고 참치통조림도 사먹지 말자. 10년전 1백50만마리였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이제 7만5천으로 줄었다. 이미 6백50만마리의 돌고래가 참치를 잡는 어부들에게 맞아 죽었다. 참치를 먹어치우는 돌고래가 참치를 잡는 어망에 휩쓸려 들어가기 때문이다.
- <16> 화장실 변기의 물을 절약하자. 변기탱크에 물을